

《기독교 종말론의 기본개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이번 테러로인해서 다시 잠잠하던 종말론이 거론된다고 간단한 견해를 피력 해달라고 부탁이 왔다.

기독교 종말론을 다 설명 하기에는 짧은 지면이 부족하다. 기본적인 견해만 피력하겠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 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성경이 안타깝게도 그 세부사항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며 상당 부분이 비밀에 부쳐졌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관한 기본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해서 추측에 불과한 것들을 교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확신한다.

성경은 마가복음 13:32-33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인가? 아니 다시 재림 하실 아들인 본인 예수님 자신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오늘날 종말론을 '성경해석' 이란 이유로 현재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를 종말과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는 종교개혁이후 근간 백년동안 계속 시도 되어 왔지만 비참한 결론만을 거듭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과거의 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과거 극단주의' 나, 미래에 나타날 사건으로 보되 현재를 지나치게 미래에 끼어 맞추려는 '종말론 미래주의' 나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종말에 관련한 '그때' 에 대해서 사람이 추측하여 언급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견해를 위에 두는 교만한 죄악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미주 한인 교계에서 90 년대 초반 '시한부 종말론' 이 득세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

필자는 당시 풀러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시한부 종말론' 자들과 논쟁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아주 교묘한 말 재주로 사람들을 미혹 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성경이 밝히지 않았다고 왜 추측 할수 없느냐? 고 반문한다.

예수님께서 내일도 오실수 있고 내일 모레도 오실수 있고, 한달 뒤에도 오실 수 있다면 왜 10 월 며칠날 올수 없겠냐고 반문한다.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성경해석이란 이유로 종말에대해서 성경에도 없는 추측성 발언과 위장된 교리적 가르침은 비 성경적인 것이다.